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취업자 중 약 71%, 월소득 200만 원 미만
- 4년간 국가채무 약 150조 원 증가

경영 노트

- 크라이슬러 몰락의 교훈

사회 트렌드

- 중장년층의 70%, 인생 2막 준비
- 신입사원의 26%, 1년 내 퇴사

저널 브리프

- 급성장하는 베트남 경제의 힘

洗心錄

- 양신(良臣)과 충신(忠臣)

□ 취업자중 약 71%, 月소득 200만 원 미만

- 통계청에서 전국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 지난 1년간(2005.9~2006.8) ‘인력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중 60.3%가 평소취업자*이고, 11.6%는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취업자로 나타남
 - 한편 연령대별 평소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40대(27.1%), 30대(26.6%), 20대(18.5%) 등으로 축소되고 있어, 청년층으로 갈수록 고용 불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평소취업자의 70.9%가 월평균소득 200만 원 미만(100~200만 원 미만 37.1%, 100만 원 미만 33.8%)의 저소득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남

- 경제 활력 저하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 심화, 인적자본 축적 저하에 따르는 성장잠재력 하락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4년간 국가채무 약 150조 원 증가

- 재경부는 국가채무가 2002년말 133조 6,000억 원에서 2006년에 283조 5,000억 원으로 149조 9,000억 원이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 비중도 19.5%에서 33.4%로 급증했다고 밝힘
 - 국가채무 증가분에서 약 58조 원(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38.9%)은 외평채 발행 등 외환시장 안정에 사용되었으며, 54조 원(35.9%)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재경부는 2005년말 기준으로 OECD국가 중 우리 나라보다 국가채무 수준이 낮은 국가는 4개 국 정도에 불과하고 채무의 내용도 경제 안정화를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힘

- 국가채무는 미래의 조세 증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나친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경계해야 할 것임

* 지난 1년간 취업 또는 구직활동을 한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서 취업기간이 구직기간보다 더 길었던 사람

□ 크라이슬러 몰락의 교훈*

- (개요) 크라이슬러가 대대적 구조조정 발표와 함께, 매각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어 미국 자동차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가 주목받고 있음
 - 크라이슬러의 모회사인 다임러는 1만 3,000여 명의 직원 감원과 뉴욕 크 등 공장 폐쇄, 원자재비 절감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 안을 발표
 - 또한, 모회사인 다임러는 크라이슬러 매각에 대해서 GM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교훈) 크라이슬러의 몰락에는 신제품 경쟁력 부재, 브랜드 수 감소, 시장 침체, 경영진 오판, 합병 실패 등의 요인이 지적되고 있음
 - (신제품 경쟁력 부재) 2006년 10종의 新모델을 내놨지만 타사에 비해 스타일이나 기능 면에서 강점을 갖지 못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함
 - (브랜드 수 감소) 기존 브랜드 수를 축소시켜 SUV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 대안이 적어지면서 매출이 감소됨
 - (시장 침체) 고유가로 인해 연료가 많이 드는 SUV 트럭의 매출이 저조, 크라이슬러의 주력시장이 타격을 입음
 - (경영진 오판) 포드가 2009년까지 적자를 예상했음에도 크라이슬러는 2008년 손익분기점 돌파 및 2009년 2.5% 흑자를 예상하여 다소 방만한 경영을 함
 - (합병 실패) 크라이슬러와의 부품 공유가 고급브랜드인 다임러 벤츠의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촉발시켜 모회사인 다임러의 매출도 감소시킴

- (시사점) 시너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한 몸짓 불리기를 위한 합병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동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다임러와 크라이슬러의 합병은 벤츠라는 고급 브랜드에 중저가 브랜드를 더하여 제품 라인의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시너지 창출에는 실패함
 - 뉴욕타임즈는 인수합병 중심의 미국보다 ‘나홀로 경영’ 중심의 일본 도요타와 혼다, 독일의 BMW가 훨씬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함

* 이 글은 CNNMoney(2007.02.14)에 게재된 “Chrysler's Valentine's day Massacre”을 요약·재구성한 것임

□ 중장년층의 70%, 인생 2막 준비

- 40, 50대 중 재직자의 72%, 비재직자의 73%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들의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준비 방법은 재직자와 비재직자 모두 ‘고등교육을 통한 재취업 및 창업 준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재직자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활용을 통한 ‘재취업 및 창업 준비’(44.8%), ‘이·전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31.5%), ‘귀농 준비’(26.2%) 순임

- 이러한 사회적 욕구와는 달리 우리 나라의 중고령자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OECD 통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90년대 이후 중고령 인구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데 반해 우리 나라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1990년 61.9%에서 2005년 58.7%로 3.2% 포인트 줄었음
 -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신입사원의 26%, 1년 내 퇴사

-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퇴사율은 31.7%로 가장 높고 대기업도 13.3%나 됨
 - 작년 신입사원 중 1년 내 퇴사자가 있는 기업은 국내외 조사대상 기업의 88.5%(757개 사)에 달함
 - 퇴사 시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가 34.6%로 초단기 퇴사자가 가장 많고, ‘입사 후 5개월 이내’(23.0%), ‘입사 후 9개월 이내’(18.0%) 순임

- 퇴사자의 퇴직 사유는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29.7%), ‘인내심과 참을성 부족’(24.6%) 등으로 일단 불고 보자식의 취업 성향을 나타냄
 - 그 밖의 요인은 ‘조직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23.1%), ‘연봉 수준이 낮아서’(9.4%),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5.3%) 등의 순임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의 보다 신중한 판단뿐만 아니라 채용 담당자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자세가 요구됨

□ 급성장하는 베트남 경제의 힘*

- 밀려오는 외국인 투자자금과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베트남경제는 최근 수년 동안 매년 8%대의 높은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급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을 잡기 위해 선진국 기업은 물론,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국가 기업들의 쟁탈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베트남 경제의 성장 동력은 WTO 가입 특수, 내수시장 급성장, 양질의 노동력, 중국 대체시장 매력 등으로 분석됨
 - (WTO 가입 특수) 올해 1월, 베트남은 150번째 WTO 가입국가가 되면서 국내외 기업 간의 차별 철폐로 외국인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음
 - ⇒ 그동안 외국인에게는 금지되어 온 유통, 무역업을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제기준 적용으로 외국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내수시장 급성장) 전체 8,500여 만 명의 인구 중 젊은층이 5,300만 명으로, 향후 30년간은 꾸준히 내수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국가경제는 가난한 반면 지하경제 규모가 크며 개인자산이 풍부하여, 향후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 여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양질의 노동력) 근면한 국민성과 높은 교육열로 임금대비 생산성은 세계최고 수준이며, 인센티브제도 활용으로 생산성이 급신장되고 있음
 - ⇒ 우수한 인적자원에 비해 임금 수준은 유치 경쟁국인 중국과 비교하여 40~60% 수준에 불과함
 - (중국 대체시장 부각) 중국 진출의 외국기업들이 점차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대체 투자처로서 베트남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들이 증가함
 - ⇒ 일본 기업들의 경우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와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 기반 및 수출시장의 다각화 차원에서 베트남 시장에 주목함

- 한류 열풍 등 한국에 대한 호의적 정서를 배경으로 한국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아직 관료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유망 투자지역에서는 빈번한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함

* 이 글은 『매경Economy』(2007.2.21/28)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양신(良臣)과 충신(忠臣)

良禽擇木而栖 良臣擇主而事(식금택목이서 양신택주이사). 훌륭한 짐승은 나무를 택해서 보금자리를 짓고, 훌륭한 신하는 군주를 택해 섬긴다는 의미다. 『변경(辯經)』의 저자 런칭진은 당나라 초기의 공신이자 대학자였던 위징(魏徵, 580~643)이 바로 그 훌륭한 신하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형인 태자 이견성과 동생인 제왕 이원길을 죽이고 스스로 태자가 된 이세민(당 태종)은 이견성의 심복인 위징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놓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 형제 사이에 끼어들었던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위징은 “사람에겐 누구나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태자께서 제 말을 들었다면 오늘 같은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견성에게 충성을 다한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관중도 제 환공의 허리띠를 활로 쏘아 맞춘 적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이세민은 위징의 솔직하고 대담한 기백에 감탄하여 그를 사면하여 주부(主簿, 관직의 하나)로 봉하였고, 황제로 즉위하자 그를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임명하였고, 후에는 재상(宰相)으로 중용되었다.

위징은 국가의 주요 통치 전략, 법의 집행, 태종의 인격 수양 등에 대해 태종에게 직언을 하기로 유명했으며, 이를 통해 당 태종 때의 태평성대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는 태종이 위징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의 직언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위징의 ‘충신(忠臣)’과 ‘양신(良臣)’에 대한 진언이다.

“양신(良臣)은 스스로 훌륭한 명성을 누릴 뿐 아니라 군주에게도 훌륭한 위세와 명망을 가져다주어 자손만대에 이어지게 하는 데 반해 충신(忠臣)은 결국 미움을 받아 주살당하기 쉽고, 군주에게는 혼군(昏君)이라는 악명을 남기고 나라를 망치고 맙니다. 결국 충신은 공허한 이름만을 얻을 뿐입니다.”

여러 주군을 모신 위징은 충신이 두 임금을 모시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신이 될 수는 없으나, 당 태종으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이끌도록 하고 자신 또한 명성을 얻었으니 충분히 良臣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言不必信 行不必果 (언불필신 행불필과)

말에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행동에는 꼭 그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대의를 위해서는 믿음과 결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맹자: 중국 전국시대 유교 사상가